

큰스님 수행한담

“수행은 결과 뿐아니라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사문품(沙門品) ④

乘慢無餘橋 기만무여교
蓮花生淨淨 연화수생정
學能逾此彼 학능사차피
知處勝於故 지시승어고

잘난체함 버려 교만의 찌꺼기 없으면
연꽃이 흙탕물에서 나도 깨끗한 것 같으리니
배움이 능히 이 경계 저 경계 버리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수승한 줄 알리라

割愛無憐慕 할애무연모
不受如蓮花 불수여연화
比丘渡河流 비구도하류
勝欲明於故 승욕명어고

애착을 버어 연모하는 정 없으면
저 연꽃이 그러하듯 더러움 받지 않으리니
비구는 세속의 감물을 건너서
무엇보다 밝아지리라

載流自待 절류자시
逝心却歇 서심각욕

“애착의 정 교만의 찌꺼기 없으면
연꽃이 흙탕물서 깨끗한 것 같으리”

仁不割欲 인불할욕
一悉猶走 일의유주

애착의 흐름을 끊었노라 스스로 믿고
욕심 사라지고 물리쳤노라 해도
욕심을 다 버어버리지 못하면
한 생각이 오히려 질주하리라

爲之爲之 위지위지
必強自製 필강자제
捨家而解 사가이해
意猶復染 의유부염

하겠노라 하겠노라
반드시 힘써 스스로를 자제하라
집을 버렸어도 게으르면
생각은 다시금 물결게 되리라

行解緩者 행해완자
勞難非除 노의불제
非淨淨行 비정법행
焉致大賢 언치대보

수행이 게으르고 완만한 이
생각만 수도고물고 버리지 못하니

깨끗한 행이 아니고서야
어찌 큰 보배를 손에 넣으랴

沙門可行 사문하행
如意不憍 여의불강
步步羂粘 보보착점
但隨思走 단수사주

사문이어 어디를 가든
그 뜻을 걸잡지 못하면
걸음 걸음마다 그것이 달라 붙어
다만 그 생각따라 달리게 된다

袈裟被觸 가사피견
爲惡不損 위악불손
憍憍行者 약약행자
斯隨惡道 사타악도

가사를 어깨에 걸치고도
나쁜 짓을 줄여 나가지 못하면
그는 온갖 악을 행하는 자로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고 말리라

不調難滅 불조난계
如風枯樹 여풍고수
作自爲身 작자위신
屬不精進 屬不精進

가사를 버리고 도를 생각해
마음 진 경지에 응하도록 하라

길들이지 않으면 경계하기 어렵다
마치 바람이 나무를 사들게 하듯이
무일 하든 스스로 재물 위한 것
어찌 정진하지 않으랴

應心非別 식심비척
憍地無戒 만타무계
捨貪惡道 사탐사도
乃感應心 내응식심

마음 씬은 배어내는게 아니다
마음에 속임이 있으면 계가 없는 것
아니

탐심을 버리고 도를 생각해
마음 진 경지에 응하도록 하라

應心非別 식심비척
放逸無信 방일무신
能滅眾苦 능멸중고
爲上沙門 위상사문

마음 씬은 배어내는게 아니다
방일은 믿을 없는 것이니
능히 온갖 괴로움 없앨 수 있어야
훌륭한 사문이라 한다

석천스님 (법성사 회주)

2백여년전 벽암대선사가 초암을 짓고
수도정진했던 봉제산 법성사를 중창불사
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온지도 40년
이 가까와 옵니다.

나의 집안은 한 평생 유학을 숭상하며
사시던 아버님의 영향으로 엄격한 유교
식 집안이었습니. 대를 이어 손이 귀했
는지 어머니의 나이가 38세가 되도록 아
이가 없어 온 집안이 노심초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절에서 백일 기도를 해보라
는 동네 사람들의 권유에 어머니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 그래서
태어난 늦둥이가 바로 나예요. 이렇게 부
처님의 가피를 받고 태어난 나는 성장하
면서 오호라 교회에 나왔습니. 교회에
가면 내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
어 좋았습니. 그렇지만 가장 큰 동기는
유난히 그림을 좋아했던 내가 가끔씩 서
양에서 온 그림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당시로서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지
요. 그러나 불교에 귀의하고 출가까지 하게
만든 것도 역시 그림이었지요.

아의로 나가 자연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절경으로 유명한 강원도
천은사를 찾아 갔습니. 수려한 자연 중
광을 음미하며 계곡에서 한참 북을 놀리
고 있는데 한 행자승이 내게로 다가와
내가 그리는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사
찰은 있는데 실제의 사람이 없군요. 진짜
사람을 그려보세요.”라고 말했습니. 그
러더니 나를 뚫어져라 보며 “진짜 사람
을 그리고 싶으시면 절로 올라와 주지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던지며 산을 올라가더군요.

나는 한동안 북을 들 수가 없었습니.
무엇인가 머리를 얻어 맞은 듯 멍한 기
분이었지요. 순간적으로 그동안 내가 어
름답다고 그려왔던 것들이 다 본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실체를 들여다
보지 못하면서 겉모습의 화려함에만 이
끌려 그린 그림이 다가 아니구나 하고
그동안 그림 잘 그린다고 나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닌가 자신
을 되돌아 보았습니.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부우침도 함
께 머리를 스텔더군요.

그길로 골짜기 주지 스님을 찾아 갔습니.
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권유받았
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자승의 가르
침이 이 정도인데 큰스님들은 얼마나 더
큰 깨우침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 후일 깨달음
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 수행정진과 갈심에 의해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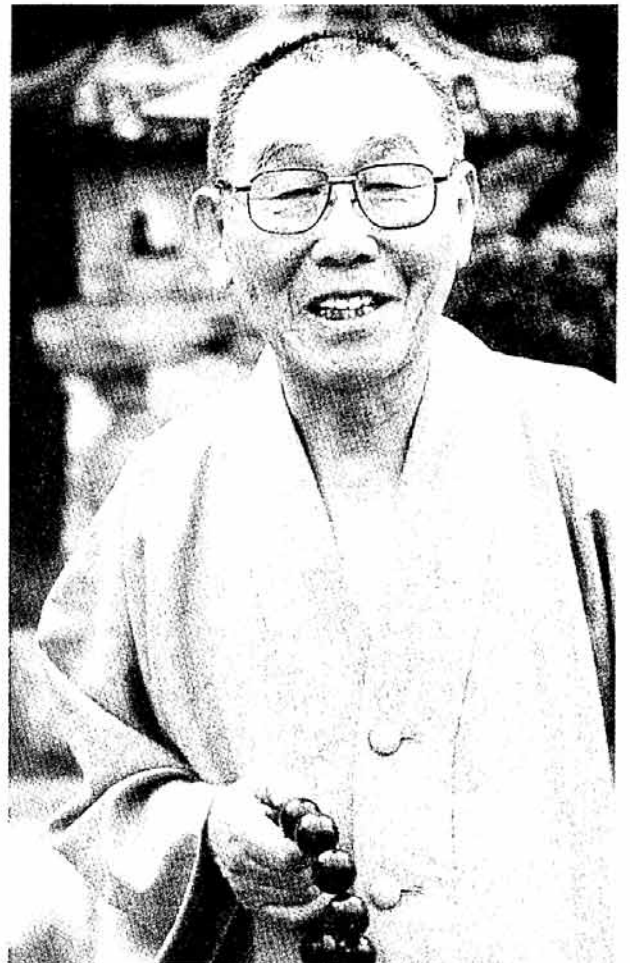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는 출가를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

1년 뒤 21세때 경허, 만공 선사 등 수
많은 선사들이 배출된 충남 예산 수덕사
에서 태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본격적
인 수행생활에 들어갔습니.

하루는 은사스님께서 조주(趙州: 778
~897)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 주셨습
니.
“조주스님에게 어느날 한 수좌가 찾아
와 이렇게 물었다네. ‘만법은 하나로 둘
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감니까
(萬法歸一 一歸何處)’ 하고 말야. 자네
는 조주 선사가 어떻게 대답했는 것 같
은가?’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

“만법은 차별적인 삼라만상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는 진여, 법성, 실상을 가
리키는 말이지. 선문에서는 자성, 주인공.

- 1914년 강원도 삼척 생
- 1935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김태흠회상을 은사로 득도
- 1948년 충남 홍성 용화사 주지
- 1962년 등촌동 법성사 주지
- 1977년 한국불교교 태고종 중앙종회부위원장
- 1988년 흥덕인간학회 이사장
- 1987년 해동불교 전문대학 학장(現)
- 現 서울 등촌동 법성사에 주석



불자는 당당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당당함은 내 주체를 잃지 않음이고
겸손은 타인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

본래 먼목이라고도 하는데 참선하면서
찾아내야 할 과제다. ‘하나’는 무엇이며,
‘주인공’은 또 무엇인가. 만법이 돌아간
다는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가? 조주선사와 수좌의 문답인 ‘만법이
일 일귀하쳐’는 그때부터 선승들이 해
쳐 나가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
네.” 이 말이 끝나자 스님은 웃으시며 말
을 계속하셨지요.

“자 그럼 다시 조주 선사의 얘기로 들
아가 보세. 수좌의 질문에 대한 조주선사
의 답이 또한 의문을 더하게 만들지 않
나? 그 수좌의 질문에 조주선사는 ‘내가

창주(甯州: 중국의 지명)에 있을 때 옷
한 벌을 지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
었다네’ 라고 대답했네.”

나는 종잡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끝없이 의심하는 자세로 만법
귀일 일귀하쳐’를 화두로 삼고 참구정진
에 들어갔습니.

화두란 강한 의심에서 정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단(疑團)입니다. 의단으
로 주어진 화두는 잘못된 인식의 습관으
로 생긴 번뇌망집을 깨우치는 작용을 하
면서도 진리의 요체를 담고 있으므로 미
혹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화두는 미혹한 생각도 마음도 표현
도 끊긴 자리에 묘하게 드러나는 진리의
묘유(妙有)를 상징하므로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리 그 자체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각성에서 화두는 풀
리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면서나 일을 하면서나 생각
을 오직 화두에만 집중시키는 일은 쉽지
않지요. 화두를 붙잡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화두에 한 생각을 오모려고 노력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화두 앞에 장막
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선의
장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이에도 오관
(五官)은 쉬지 않고 바깥 경계를 끌어들
여 여지없이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생각
이 일어나는 대로 문 채 그것을 지켜보
면 가지 않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일
이 없습니.

모든 것을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화두를 떠
올리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참선에서 가

영어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정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소 리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福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승대 임제종의 원소스님이 문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앎앎이가
뻑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벽암이다

살아 있는 선

오소 리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소 리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영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영혼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소 리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경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소 리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스로 남다른 우위를 갈고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이경옥 · 황광우 옮김 / 장편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위선의 법제자로 미조신사의 많은 선 자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욕을 만나
해탈국사의 화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선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산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정(五家宗)의 하나인 위암종(沩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소 리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